

‘지도부 총사퇴’ 압박 속 김한길 최고위원 사퇴

민주 인적쇄신 ‘격랑 속으로’

박지원·이해찬 거부…당내 갈등 여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새로운 정 치위원회가 ‘지도부 총사퇴론’을 들 고 나온 데 이어 1일 김한길 최고위원 이 곧바로 사퇴하면서 대선은 40여일 앞둔 민주통합당이 인적쇄신의 격랑 에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문 후보가 일단 지도부 사 퇴에 부정적 입장은 보이고 있고 퇴 진의 주요 대상인 투톱의 이해찬 대 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거부 입장은 분명히 밝혀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부 인사 위원으로 이뤄진 새정치위 는 전날 심야 회의에서 지도부 총사 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지도부 총사 퇴를 포함한 인적쇄신 방안을 놓고 논의했는데, 일부 위원은 지도부 총

사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새정치위는 인적쇄신이 정치쇄신 의 출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 며 이날 오후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 정이었으나 문 후보 등과 의견이 맞지 않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위는 지도부 총사퇴 등 국민 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강도 쇄신이 전 제돼야만 문 후보가 처한 답답한 상 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내 비주류 그룹 도 ‘이해찬-박지원’ 퇴진을 요구해왔다.

이에 비주류 좌장격인 김한길 최고 위원도 이날 지도부 출판 퇴진을 요구하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 후보가 쇄신을 거리낌없이 이끌 수 있도록 현 지도부가 모든 기득권 을 내려놓고 융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도부가 출범 후 다섯 달 동안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지 지도부의 전권을 문 후보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대선기간 지도부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지도부 총사퇴론은 당장 반발을 불렀다.

우선, 문 후보가 ‘현실적으로 고려 할 문제도 많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 주고 시간을 좀 줘으면 좋겠다’며 부 정적 입장은 보였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 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의 문 답에서 “두 분은 일단 선대위에 참여

하지 않았고 최고위 권한은 전부 후 보인 제게 위임됐으니 사실상 이미 2 선 퇴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도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힘을 합쳐야지 어느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다”라며 “김한길 최고위원의 사퇴 보도가 있는데 정말 그러지 않기를 신심 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선대위에 개입하지 않고 원내대책에 전념하고 있다”며 “대선승리에 전념할 때지 내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서 “모든 것은 후보께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지도부 총사퇴’ 단일화 어떤 영향?

지지율 정체 타개·정치쇄신 물꼬 예상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총사퇴 논란 이 애원 후보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에서 주도권의 향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 새로운 정체치위회(새 정치위)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는 문 후보의 지지층인 중도·무당파층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민주당의 이·박 퇴진론에 대한 신 중한 태도는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규성·유은혜 의원 등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련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애원

단일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역사적 책무”라며 “실패하면 이명박 정권보다 더욱 무서운 구수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낙청 교수 등 재야 원로인사가 참여하는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 회의’도 논평을 내고 “정치혁신 방안에 관한 양측의 소통과 대화는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안 후보 측 김성식 본부장은 “각 후보가 나를 고유의 정책과 비전을 갖고 국민 앞에서 소통하는 자체가 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단일화의) 전제조건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성근 민주당 선대위 시민캠프 공동대표와 민주 정책 홍보단 ‘한다go’ 명계남 단장이 1일 광주 서구 광진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민주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비주류 ‘기득권 포기 10대 방안’ 준비

회기중 골프 안치기·외유성 해외출장 안가기 등

민주통합당 내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제도개혁을 위한 10대 방안을 조만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방안엔 회기 중 골프 안치기, 외유성 해외 출

장 안 가기, 공항의전실 이용 안 하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비주류 모임인 쇄신모임 소속 일부 인사들은 지난 25일 조국 서울 대교수와의 토론회 이후 자체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모임에서는 국회의장 및 시·도의회 의장의 판공비 축소를 비롯한 ▲시·도의원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 포기 ▲비례대표 의원들의 상시적 국민 간담회 개최 등의 아이디어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연주 의원은 이날 초선의원 모임인 민초넷 주최로 열린 국정감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와 일하는 국회 만들기 실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서도 ‘투표시간 연장’ 운동 확산

시민단체·민주당 ‘1인 시위’ 등 여당 압박

여야가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은 1일 광주 북구 종합동 새누리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외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민행동은 “비용이나 효율성을 핑계로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하는 박근혜 후보야말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며 “박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투표율이 저조하지만 530억 원이

나드는 재외국민투표는 애초부터 시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시민 캠프도 투표연장을 위해 1일부터 전국 100곳에서 동시다발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투표연장을 위해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시민캠프 송갑석(전 전대협 의장)·이병훈(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공동대표는 각각 광주시청 앞과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투표연장을 위한 대시민 흥보 활동을 진행했다. /최권일기자 cki@



민주당 선대위 광주 시민캠프 이병훈(왼쪽)·송갑석 공동대표가 1일 광주시청 앞과 유스퀘어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역 거점대·특성화대 육성

2017년 ‘반값등록금’ 실현

안철수 교육개혁 방안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일 지역별 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고 대입 전형을 4가지로 간소화하는 한편 오는 2017년까지 대학 반값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개혁 공약을 공개하고 “학력·학벌·지역 차별 없이 모두

당당하게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사고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거점 대학은 지역별로 대학을 하나씩 선정해 국내 최우수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고, 특성화 혁신대학은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형식으로 30여 개를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국공사립대를 상대로 ‘반

값 등록금’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외 계층을 상대로 기회균등 대학입학전형을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외교·국제교·자립형 사업과 존속기제 현재의 우선 선발 방식을 폐지하는 한편 대학 입학 시 전형을 수능과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 전형 등 4가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지난달 31일 밤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후원회 행사 ‘시월의 마지막 밤’을 철수와 함께’에 참석, “저와 싸우는 정당들은 정말 거대 정당들이고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 조직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로 사설 비교가 안 된다”며 “골리앗과 싸우는 달의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법원판결문
- 각종채권
- 물품대금
- 대여금
- 운송료
- 구상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영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상암동[나이트클럽]	대228坪, 건3090坪 감정가 72억원 최저가 25억원	화정동[예식장]	대194坪, 건448坪 감정가 41억원 최저가 17억	동암동[목욕탕]	대570坪, 건1256坪 감정가 129억원 최저가 5억3천	소래동[독서실]	대561坪, 건1439坪 감정가 128억원 최저가 6억9천	월출동[공장]	건1089坪 감정가 14억4천 최저가 10억	화순동[무인텔]	대190坪, 건269坪 감정가 28억7천 최저가 18억7천	월계동[근린시설]	대446坪, 건269坪 감정가 6억3천 최저가 3억5천
------------	---------------------------------------	----------	-------------------------------------	----------	--	----------	--	---------	--------------------------------	----------	--	-----------	--------------------------------------

유동화자산[하이미스포렉스]

대4076坪 ▷ 건물 12943坪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북구 대촌동[총공장]

대1506坪 ▷ 건물 1031坪
감정가 39억8천
매매가 32억5천(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구로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소재지 대지구역 면적/층수/층고/최저가/비고

나주반달 대788坪, 건2857坪
광동 대6611坪, 건2902坪
당동대역 대10991坪, 건2900坪
대20845坪, 건3386坪
나주동 대3958坪, 건2053坪
부양재 대11028坪, 건2